

로컬 공동체와 '차이의 공간' 생성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차윤정*

- I. 서론
- II. 로컬과 '차이의 공간'
- III. '차이의 공간' 생성1: 로컬 구성원
- IV. '차이의 공간' 생성2: 공통의 일상과 장소경험
- V. 결론

국문요약

국가적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서구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작동원리이자 보편적 지식으로 소통되고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작동원리나 가치체계는 기존 세계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와 만났을 때,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러한 경합과 조정의 과정이 벌어지는 로컬 공동체에 주목하여, 이 로컬 공동체를 '차이의 공간'으로서 의미화하고 그 공간의 생성 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위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로컬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조사하였다. 우선 이 해녀공동체 내부의 운영체제에 작동하는 원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가 신자유주의적 원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 해녀공동체의 구성원적 특성과 함께 오랜 시간의 축적과 생활세계에 기반한 공통적 장소경험을 통해 형성된 로컬의 작동원리와 가치체계, 그리고 그 기저에 자리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생활세계에 기반하고 시간적 축적을 통해 형성된 로컬의 가치체계와 작동원리는, 위로부터의 강제적 이식을 통해 세계를 동일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전략에 저항하여 차이를 생성해 내는 공간 즉, ‘차이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로컬은 보편적 원리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이식되는 탈장소화된 가치나 원리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 공간이며, 로컬마다 이식과 저항의 국면에서 생성되는 차이의 양상이 곧 로컬리티의 양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신자유주의, 로컬공동체, 차이, 생활세계, 저항.

I. 서론

1970년대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작동원리로 자리잡는다.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과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외환시장 개방 등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필두로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경제 위기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으로는 명예퇴직, 비정규직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같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금융 지식이 일반화 되었으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관리와 개발 담론들이 일상의 지식이 되었다.

국가적 경제 위기와 함께 서구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원리는 경제분야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의 전 분야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 담론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¹⁾ 이렇게 이식된 신자유

1)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23-30쪽.

의적 작동원리와 가치체계가 한국사회의 보편적 원리와 지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은 위로부터 이식된 낯선 지식체계에 저항하기보다는 보편적 지식체계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적, 자발적으로 포섭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 양상을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이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묶어 표현하는 것은, 표면적 혹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동일화하여 재현한 것이다.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의 복잡한 과정과 차이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다.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은 기존의 세계에서 작동하던 원리나 가치체계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다. 더구나 새로운 작동원리나 가치체계가 생활세계에 기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바에야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자생적인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의 변화나 교체란, 이전까지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구성원들의 삶 속에 점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적 유예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원리의 보편화는 생활에 기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서구로부터의 강제적 이식이라는 점에서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원리가 보편화 되면서 이전의 세계를 지배하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는 일거에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처리되어 배제되고 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서구에 비해 가족이나 지역 같은 연대의식이 비교적 강했던 한국의 사회적 특성²⁾이 신자유주의의 유입과 함께 급격한 초개인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작동원리가 보편화 되면서 개인들의 삶에서도 경쟁이 중요한 삶의 원리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과거의 연대의식은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처분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은 고독과 소외, 불안을 경험하면서 자기계발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³⁾

2) 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 『창작과 비평』, 143호, 2009, 219쪽.

3)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위로부터의 기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활 세계에 기반한 작동원리와 가치체계를 배제하거나 완전히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로컬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지식으로 소통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투과하지 못하는 로컬 공동체⁴⁾의 사례를 대상으로, 로컬이 보편화, 동일화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저항과 조정을 통해 탈장소화된 보편적 가치나 원리의 이식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차이의 공간으로 생성될 수 있는 이유를 살피고, 이를 통해 로컬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로컬 공동체⁵⁾인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내부의 운영방식의 특성과 이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체계에 대해 살피고, 해녀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로컬이 가진 차이의 생성 혹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체의 탄생』, 돌베개, 2014.

- 4) 다양한 공동체의 정의가 가능지만 “개인들이 일상적 활동으로 만나면서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의 영역”이라는 Hansinger & Pinkerton의 공동체 정의처럼,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구성원 사이의 공동의 유대나 연대가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동일 「대안공동체의 유지와 한계-변산공동체와 아마기시 실현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8-46쪽.
- 5) 로컬리티의 인문학에서 ‘로컬’이란 개념은 수직적 관계에 바탕한 중심에 대한 주변,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의미와 함께 수평적 관계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수직적 관점에서의 로컬은 관계적 관점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로컬은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인식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외연을 가진다.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로컬 공동체는 로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위의 로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대상인 로컬 공동체를 통해 추출된 논의 결과는, 로컬의 일반에 적용 가능한 논의의 하나가 될 것이다.

II. 로컬과 ‘차이의 공간’

1. 암남공원 해너공동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프리드먼은 정부의 주된 기능을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제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며, 인간의 자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자유시장의 민간기업에 맡기는 ‘경제적 자본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 경제적 자유를 인간 자유의 핵심 조건으로 보는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들 간의 규제 없는 자유로운 무한경쟁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실천으로 의미화 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실천으로서 경제적 효용가치의 중요성과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원리를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확산시켜왔다. 국가적 경제 위기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구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된 신자유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나 항변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특수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에서는 기업 간의 경쟁은 물론 개인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조차 경제적 효용가치와 무한경쟁이 중요한 삶의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작동원리나 가치체계는 기존 세계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와 만났을 때, 그 기간이나 양상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자유주의 원리의 급속한 보편화 과정 속에서도, 신자유주의 원리로의 동일화를 위반하는 혹은 저항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에서는 위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원리 특히 일상적 삶의 영역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경쟁 원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예로서 로컬 공동체인 암남공원 해너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 내에는 ‘암남공원 해너촌’, ‘암남공원 해너공동

6)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친밀한 적』, 이후, 2010, 21-22쪽.

체'로 알려진 해산물 판매촌(텐트촌)이 자리한다. 이 해녀촌은 암남공원 해변 주차장 옆에 자리하는데, 29개의 상점에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이 해녀촌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텐트촌이 생기기 전, 이곳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판매하던 해녀들이 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여기에 자리를 배정 받아 장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해녀공동체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 바꾸기', '마수 시켜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특이한 운영방식이 존재한다.⁷⁾

'자리바꾸기'는 해녀촌 상점들이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영업하는 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해녀촌은 삼각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각 변은 바다 쪽, 산 쪽, 주차장 쪽에 면해 있으며, 상점들은 이 변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상점이 면해 있는 방향은 수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바다 쪽 상점이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이 주차장 쪽, 그리고 산 쪽 상점이 가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⁸⁾ 텐트촌이 만들어지고 처음 이주할 때, 해녀들은 뽑기를 통해 각자 장사할 자리를 배정 받았다. 얼마 동안 각자 고정된 자리에서 장사를 했더니, 바다 쪽은 수입을 많이 올렸지만 산 쪽은 공동회비를 내고 재료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손해를 볼 정도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여름에는 수익 차이가 더 심했다. 그래서 자리 바꾸기를 하자는 의견이 나이든 해녀들과 조합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⁹⁾ 회의 결과 모두 찬성하여 1년에 한 번씩 장사하는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후 이곳에서는 매년 3월 상점 주인들이 모여 자리를 두고 추첨을 한다. 산 쪽 사람들은 바다 쪽 자리를 두고 추첨을 하고 바다 쪽 자리 사람들은 주차장 쪽으로, 주차장 쪽 사람들은 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첨을 한다.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한 번씩은 바다 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7) 이 공동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윤정,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코기토』 79집, 2016, 294-301쪽 참조

8) 이것은 각 상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공간적 차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만을 말한 것이다.

9) 입00, 서00

하고 있다.¹⁰⁾

이곳에서 ‘마수시켜 주기’란 마수를 못한 상점으로 손님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마수하다’라는 것은 하루 중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어쩌다 보면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손님을 한 사람도 못 받는 집이 생긴다. 이럴 때 여기에서는 일부러 손님을 그 집으로 보내서 첫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마수시켜 주기 전통은 나이든 해너 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¹¹⁾ ‘손님 보내주기’란 손님이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손님을 다른 상점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텐트촌 상점의 내부구조가 입식과 좌식으로 구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다 쪽의 상점들은 입식이지만 산 쪽의 상점들은 좌식이 많다. 손님의 연령이나 취향에 따라 입식과 좌식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좌식이 편리하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오면 자기 집으로 온 손님이라도 좌식으로 된 상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¹²⁾

요리법 전수하기란 새로 개발한 음식의 요리법을 다른 상점에도 전수하여 요리법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너구성원의 세대교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젊은세대들의 유입으로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음식메뉴의 변화이다. 과거 이곳에서는 해산물을 손질해서 판매했었는데 젊은세대들의 유입으로 장어요리나 치즈를 이용한 요리 같은 새로운 음식 메뉴들이 개발되었다. 젊은세대들의 인터넷 홍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새로운 음식을 찾게 되자 해산물만을 판매하던 나이든 세대들의 수입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들에게 새로 개발한 음식의 조리법을 전수해 주게 된 것이다.¹³⁾ 그래서 해너촌

10) 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안미정의 논문에서도 자리바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미정, 「부산시 해너 커뮤니티의 존재양상」, 『역사와 경계』 89호, 부산경남사학회, 2013, 233-234쪽.

11) 여기서는 마수 시켜주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하루종일 있어도 손님을 하나도 못 받는 때가 있거든요. 인자 그러믄 주위에서 손님을 글로 보내죠. 그래 가지고 마수를 시켜주는데, 이걸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하던 거예요. 장사를 하면 경쟁도 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회자매

12) 서00

각 상점들의 음식메뉴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상점이 공동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숙이네’와 ‘총각집’, ‘희자매’와 ‘제주해녀’의 경우, 두 상점이 모여서 한집처럼 공동영업을 하고 있다. ‘숙이네’와 ‘총각집’은 젊은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공동영업을 하고, ‘희자매’와 ‘제주해녀’는 젊은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공동영업이다. 공동영업은 두 상점이 재료비를 같이 내고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들이 공동 영업을 하는 이유는, 재료 장만이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편하고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영업 방식은 옛날 해녀들의 전통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¹⁴⁾

2. 로컬의 원리와 ‘차이의 공간’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론 밖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동일화의 전략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암남공원 해녀공동체처럼 우리의 일상과 실천이 전개되는 로컬에는 신자유주의의 동일화 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경들이 존재한다. 경쟁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해녀공동체가 보여주는 경쟁의 모습은, 이미 한국 사회의 보편적 원리의 자리를 차지한 신자유주의적 경쟁과는 다른 삶의 풍경, 즉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13) 젊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젊은사람들이 자기집 메뉴를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오잖아요. 와서 보고 이집은 왜 그걸 안 주냐 하게 되면, 할머니들도 우리한테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하니가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치즈 넣어서 조개구이 하는 거, 장어구이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죠. 희자매

14)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일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게 편해서 해요. 그리고 친구거든요요. 양02

재료장만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장소도 같이 쓰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나누어 갖죠. 그게 좀더 편한 거 같아요. 옛날부터 해녀들은 ‘가부시끼’(협동)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공동으로 잡아와서 저울에 달아 공동망에 넣고 장사하고 물건 값 빼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던 전통이 있었다는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희자매

해너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 또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들이 쥘여있는 장은 경쟁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도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작동원리인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른 경쟁의 논리가 작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도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호객행위를 하는 등 각 상점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리 바꾸기’, ‘마수시켜 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방식의 존재는 이 공동체 내에 작동하는 경쟁의 원리가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리 바꾸기’, ‘마수시켜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방식이 작동하는 경쟁체제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담론 속에서 삭제되었던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너’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의 ‘너’처럼 ‘나’와 관계 맺지 못하는 물화된 존재로만 의미화 되지 않는다. 경쟁하며 장사를 하지만 “같이 살아야지”와 “이 안에서는 너무 장사가 안 되거나 하면 그것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때문에 경쟁을 해도 서로가 완전히 남들처럼 경쟁하듯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완전히 안 되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¹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의미화된다. 따라서 이 경쟁체제 속에서 ‘너’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남’도 아니고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면 안 되는 존재이며, ‘공동’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의미화 된다. 이렇게 ‘너’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삭제되었던 ‘우리’라는 개념의 복권으로 이어진다. ‘우리’ 개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자리바꾸기’나 ‘마수시켜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 방식이다. 그리고 이들 운영방식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또는 ‘공생’의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원자화된 개인주의로 치닫기보다는 항상 공생이라는 꼭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15) 회자매

는 경쟁이다.¹⁶⁾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통해 행복과 권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치체계의 중심에 두고 있음에 반해, 암남공원 해녀공동체에서는 경제적 효용가치가 인간적인 유대관계의 후면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적 유대관계가 가치체계의 중심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해녀공동체 내에는 신자유주의가 자유로운 무한 경쟁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누락시켰던 ‘우리’라든가 ‘공생’의 개념이 유지되면서, 극대화된 개인주의나 경쟁논리가 유보되고 공생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경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암남공원 해녀공동체가 보여주는 신자유주의라는 보편적 원리와와의 차이는, 보편이라는 권력¹⁷⁾을 배경으로 한 위로부터의 기획이 개별 공간에 이식된다 하더라도 개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식이 전개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암남공원 해녀공동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식 과정에서 그들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원리나 가치체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녀들에서 기원한다는 전통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 공동체 내부의 운영방식에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보편적 원리에 포섭되고 동일화 되지 않은 이러한 차이의 양상은, 이 공동체 내의 작동 원리나 가치체계가 그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특정 공동체 혹은 로컬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작동 원리를 여기에서는 로컬의 가치체계와 작동원리와 가치체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공동의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된 낯선 원리나 가치체계와는 다르다. 시간의 축적과 함께

16) 차윤정,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암남공원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코리아토』 79집, 2016, 301-304쪽 참조.

17) 다يان 맥도넬,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1992, 59-61쪽.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의 호출을 통해 개인의 인지기제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에 대답하며 종속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된 보편의 힘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동체 내부 구성원에게 체화된 공동체의 규칙과 그에 내재하는 작동원리와 가치체계는, 그들의 삶과 유리된 낯선 가치체계, 작동원리와 만났을 때, 일시에 그것에 포섭되기보다는 그것에 저항하거나 갈등을 통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욕망 등이 반영된,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치체계나 작동원리는 생활세계와 거리가 있거나 유리된 가치체계나 작동원리를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신자유주의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의 보편화라는 동일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기획이, 생활세계에 기반한 로컬 공간에서 저항을 받거나 조정되는 것도 이러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로컬은 위로부터의 동일화의 기획에 반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생성되는 차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조정, 변화의 양상은 각 로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각의 로컬은 저마다의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규칙 또한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로컬이 가지는 이러한 차이는 위로부터의 동일화의 전략에 대응하는 양상이나 그 변화의 모습 또한 로컬별로 차이를 만들어 내게 한다. 로컬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곧 특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로컬리티의 한 양상이다. 그리고 로컬은 이러한 차이를 생산해 내는 차이의 공간이다.

그렇다면 압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성해 내는 즉, 신자유주의를 거슬러 차이를 생성해 내는 로컬의 작동원리(경쟁 원리)와 가치체계는 어떠한 배경 아래 형성된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형성을 이 공동체의 구성원, 공동체 형성과 변화 과정 같은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Ⅲ. ‘차이의 공간’ 생성1: 공동체 구성원

1. ‘해녀’와 유대감

압남공원 해녀공동체는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 판매하던 해녀들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랜 기간 이곳에서 해산물 채취와 판매를 하고 추방의 위협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해녀라는 직업이 갖는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관점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서로간의 유대감이나 연대의식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해녀의 경우는 이러한 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이다. 해양어로라는 작업의 특성이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작업할 때에도 어로 공간을 미리 계획하고 몇 사람씩 함께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물질하는 도중에도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준다. 물질이라는 것이 개별노동일 뿐만 아니라 동료의 채취경쟁자라는 점에서 동료의 안전이 관심 밖일 수도 있겠지만 해녀들이 동료의 위험을 방관하지 않는 것은, 바다에 몸을 띄운 채 어로를 하는 이들에게 인근 동료는 자신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보호막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해녀들은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돌보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해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보다는 ‘연대의식’과 ‘상호조력’이 강하게 요청된다. 암남공원 해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과 공생 의식의 생성 역시, 해녀라는 직업적 특성이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녀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어로구역이 같은 해녀들은 작업장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지만, 작업장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도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조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로구역이 같은 해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되어 한 집에 모여 한담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목회를 만들고 농사일과 집안 경조사에 함께 조력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상호연대의 모습이¹⁹⁾ 그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암남공원의 해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 해녀들은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함께 어로할

18)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제주도 잠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10권 2호, 2006, 166-168쪽.

19) 안미정, 위의 논문, 166쪽

동과 판매활동을 하지만, 작업장을 벗어나서도 대부분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암남공원의 해녀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집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일을 쉬는 휴일에도 특별한 볼일이 있어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함께 목욕을 가기도 하고 미용실에 모여서 머리를 하거나 한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²⁰⁾ 그리고 지금은 행해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친목계가 있어 1년에 1번이나 2번 야유회를 다니기도 했다. 또 과거에는 서로의 경조사를 함께 해서 구성원의 경조사가 있는 날은 모두 휴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부조는 하지만 휴업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변화는 있지만, 암남공원의 해녀들은 작업장을 떠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암남공원 해녀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해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해녀들은 ‘박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는 해녀들이 가까운 사람이 물질을 못 할 경우 몰래 망사리에 소라나 전복을 하나씩 넣어주는 일은 있어도 자신이 물질한 것을 다른 해녀에게 주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이러한 행위 뒤에는 채취한 해산물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취물이라는 배경이 자리한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물질한 것들을 다른 해녀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²¹⁾ 하지만 암남공원의 해녀들에게는 해산물의 증거가 좀더 쉽게 행해졌다고 한다. 1950년대에 어린 나이에 이곳에서 물질을 배웠던 해녀는 어른들이 물질을 가르쳐주고 성계, 명계 같은 것을 따주어서 팔기도 했다고 한다.²²⁾

해녀라는 직업적 특성 외에도 이들 해녀들이 모두 제주 출신이라는 점 또한 유대감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녀들의 부산 유입은 기본적으로 ‘생계유지’와 관련된다.²³⁾ 경제적 이유가 원인이 된 타지로의 이주는 타지에서의 적응이라는 목표와 함께 그들의 생활 태도를 억척스럽고 경쟁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떠나온 자들끼리의 연민에 기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

20) 회자매, 임00

21) 민윤순,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 2012, 31쪽.

22) 임00

23)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2010, 451-456쪽.

다. 해녀들은 심층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못 배워서 힘이 없고”²⁴⁾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는 타지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힘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자신들이 ‘힘없는 자’라는 생각은 이들을 결함시키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생계를 위해 타지로 떠나와 여자의 몸으로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서로의 처지에 대해 연민과 함께 결속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밑바닥에 자리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대감 형성에 제주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은, 이곳에서 물질을 배운 이들이 모두 제주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곳 해녀들은 제주에서부터 해녀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해녀일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 또한 모두 제주 출신이었다. 이곳에서 해녀일은 배운 임00 씨는 지금도 자신에게 물질을 가르쳐 준 해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가난 때문에 부산으로 와서 공장에 다녔지만 여전히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어려웠던 시절, 물질을 배움으로써 생명을 건 노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배움의 의미를 넘어 생활의 구제 측면으로서의 의미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해녀들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혜적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억해 내고 있다. 이로 보아 이곳에서 해녀일을 배운 경험은, 가르친 사람과 배운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녀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2. 구성원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조정

지금의 암남공원 해녀촌이 자리한 이 장소를 기반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했던 최초의 집단은 해녀들이었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해산물을 채취해온 공간이 매립되면서 이곳에서 판매행위를 하던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곳에서 해녀들 외에 외부인들이 함께 해산물

24) 임00

판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곳 해녀나 다른 구역 해녀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했다. 해녀들과 해녀가 아닌 사람들이 섞이게 된 것이다. 외부인들의 섞임으로 인한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외부인들이 해녀들의 물건을 받아서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매 장소가 된 동일 공간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매개로 외부인들은 해녀들의 집단에 섞이게 되었다.²⁵⁾ 그후 다시 한번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1997년 이후 이곳이 현재와 같이 정비되고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나이든 해녀세대들이 물러나고 일부 자녀 세대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공동체는 다시 구성원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4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세대는 대체로 40대가 중심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이곳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밖에서 횃집을 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이리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²⁶⁾

자녀세대가 유입되기 전까지 해녀공동체의 유대관계나 결속력은 그들의 공동체의 규칙(해변조합 규칙)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해변조합 규칙>²⁷⁾

- * 본 조합의 목적은 조합원과 영업자 상호간의 친목 및 단결, 협동,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둔다.(총칙 2항)
- * 본 조합의 회의는 정기총회(상반기, 하반기), 임시총회, 긴급회의를 둔다.(3장)
- * 배당된 구역 옆선을 침범하여 말썽을 유발시키는 자, 조합원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호객행위(기본 배당된 자리 해물진열대 안에서만 호객행위를 해야된다.)주의) (5장, 벌칙사항)
- * 자체 경고제를 통해 1차경고부터 4차경고까지 강도에 따라 영업정지를 준

25) 1980년대 이후 노점상 단속이 심해지면서 같이 장사를 하던 외부인들 오류명이 해녀들과 함께 판매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녀들과 이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 차윤정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토기토』 79집, 2016, 295쪽.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물을 바다에 투기하거나 고의로 (회의)에 불참 했을 때는 벌금조치를 한다.

* 본 조합은 항상 생업에 종사하며 의견을 교환하면서 잘못된 회칙은 임시회의 때 수정할 수 있다.(제8장 회칙수정)

* 본조합원의 사망시 쌀 3가마(현시세 적용), 직계가족 길흥시 쌀 2가마(1회에 한함), 길사시:예식장 참석 후 영업을 시작, 흥사시: 출상한 날 영업중지(토, 일요일의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 등이다.

구성원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친목과 단합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서로 간의 극심한 경쟁을 염려한 호객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길흥사의 부조와 동참을 명문화한 것은, 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자 그들 사이의 경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일상 속의 논의를 바탕으로 회칙 수정이 가능하도록 명기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그런데 구성원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특히 자녀세대들이 공동체에 섞이게 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공동체의 규칙이다.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나이든세대들이 명문화하여 붙여두고 지키려 했던 것을, 젊은세대들은 “상도덕 같은 거라서 몸에 배여서 따로 말하거나 붙여 있지 않아도 지키는데요.”라고 하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²⁷⁾

공동체 규칙 중, 변화가 가장 큰 것은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칙이다. 대표적으로 호객행위와 관련해서 조합규칙에는 아래 사항을 어길 시 1차 경고한다는 문구와 함께 “호객행위(기본 배당된 자리 해물진열대 안

27) <해변조합 규칙>은 서00씨와의 2차 심층면담 시(2015.5.29.)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 공동체의 해녀들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당할 위기를 경험하면서, 1996년 해변조합을 창설하여 조합원으로 전원 가입하고 일부는 자녀 세대까지 승계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변조합은 1999년 다시 해녀조합으로 이름을 바꾼다.

28) 지금 그 회칙은 의미가 없어요. 회칙이라는 글로 표현 안 해도 몸에 익어서 상도덕 같은 거라서 몸에 배여서 따로 말하거나 붙여 있지 않아도 지키는데요. 뭐. 회자매

에서만 호객행위를 해야된다).(주의)”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해너촌 중앙 공동공간에 “이곳에서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 팻말은 없어지고, 단지 한 상점만이 간판 옆에 “저희 가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플라스틱판을 걸어두고 있다. 실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운영하는 이 상점만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상점들에서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지금은 대부분 호객 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규칙 안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한다. 젊은세대들이 들어오면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에 변화가 생겼는데,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어도 행동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²⁹⁾ 이에 대해 젊은세대들은 조합에서는 호객행위를 하지말라고 하는 데 쉽지 않다고 한다. 한번은 호객행위 때문에 손님이 구청에 고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다른 곳에 비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호객행위가 심하지 않고 호객행위도 나름대로 정해진 영역 안에서 한다는 규칙을 지킨다고 한다.³⁰⁾ 호객행위와 관련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이 공동체 내에도 경쟁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식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경험한 젊은세대의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세대가 가진 경쟁의식이 공동체 내에 그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의식 또한 변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밖에서 횃집을 운영하다가 이곳으로 온 젊은세대가, 밖에서 하던 경쟁 방식을 이곳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호객행위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공동경영을 하고, 공동체의 운영방식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³¹⁾ 이는 보편적 원리라는 권력에 의지해 이식되는 경쟁논리가 공동체라는 로컬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항을 받거나 조정되는 대표적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의의 횃수나 경조사와 관계된 규칙 등 다양한 것들이 변

29) 호객행위를 해야 장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도 내가 호객행위 하지 말라고 하면 먼산만 쳐다보는데 뭘.

30) 양02

31) ‘숙이네’의 젊은 주인은 밖에서 횃집을 운영했었다고 하는데, ‘숙이네’와 ‘총각집’은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화를 겪고 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상시로 회의를 했지만, 지금은 1년에 1번 회의를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비상회의를 한다. 또 예전에는 구성원의 경조사가 있으면 그 날 장사를 하지 않거나 경조사에 다 참석한 후 장사를 하였는데, 지금은 부조는 하지만 영업은 그대로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나이든 세대들은 이전하고 달라지기는 했지만, 생각이 다르니 예전과 똑 같을 수는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회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적어졌다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회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생각도 있고,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회의 때 건의하면 된다는 의견까지³²⁾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대해 젊은세대들은 문제나 의견이 있으면 정기총회 때 하거나 꼭 필요하면 비상회의를 건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집의 경조사에 찾아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모두 장사를 휴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나이든 세대도 젊은 세대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처럼 구성원들의 변화와 함께 이전부터 있던 공동체 규칙들 중 일부는 변화를 겪고 있다.

공동체의 규칙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젊은세대의 유입은 공동체 밖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가 유입되는 경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유입된 ‘경쟁 논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동체 내의 기존의 작동 원리나 가치체계와 경합하고 갈등하며, 새로운 ‘경쟁 논리’가 기존의 원리나 가치체계 속으로 흡수되거나 서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소소한 변화들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공생을 바탕으로 한 ‘자리 바꾸기’, ‘마수시켜주기’, ‘손님 보내주기’, ‘요리법 전수하기’, ‘공동영업’ 같은 운영방식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의 모습과 공생 의식을 바탕으로 한 운영방식이 자리한다는 것은 나이든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에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화된 신자유주의 원리가 로컬이라는 공간에 이식되는 과

32) 임00, 조합장, 서00

33) 임00, 서00, 회자매

정은 일방적인 포섭에 의한 동화가 아니라 로컬에서 작동하고 있던 원리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체계가 작동원리가 흡수되거나 조정되면서 재편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의 기저에는 로컬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IV. ‘차이의 공간’ 생성2: 공통의 일상과 장소경험

1. 장소와 생활리듬의 공유

송도 암남공원 해녀촌 근처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부터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심층면담을 통해 이곳 해녀들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이곳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주된 고객은 피난민들이었다.³⁴⁾ 당시 이곳 해녀들의 작업 환경은 탈의장이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해녀들은 아침에 바다로 나오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 왔으며, 탈의장이 없어 물질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했다. 해녀들은 근처 바다에서 물질을 해 이곳 모래사장이나 자갈밭에서 판매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해녀들의 작업장이자 판매장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녀의 작업장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바다와 불턱, 탈의장, 창고 등이 위치한 부속 공간으로서의 육지를 말한다. 해녀들은 이 작업장을 근거지로 해산물을 채취하고 이를 판매장인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 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직접 이곳에서 판매했다.

작업장과 판매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의 공간적 특징은, 해녀들의

34) 임00

접촉 시간과 생활리듬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바다에 한번 나갈 때마다 대체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같은 바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바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같이 육지로 오르면, 또 동일한 공간에서 판매 행위를 한다. 이렇게 작업장과 판매장이 연결된 공간적 특징은 이들 사이의 접촉 시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녀들의 집 역시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서, 노동 이외의 일상생활이나 휴식을 할 때에도 서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휴일에 같이 목욕을 가거나 미용실에서 만나 한담을 즐기고 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그런데 접촉 시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배치되는 행위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동시간대에 배치된 해녀들의 행위가 유사하다는 것은 이들의 생활리듬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채취 작업과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뿐만 아니라 거주 장소가 암남동 주변이어서 대체로 바다로 나오는 시간대나 나무를 하는 시간대 등이 거의 유사했다. 그리고 텐트촌이 지어진 뒤에는 휴일마저 정해 놓고 쉬기 때문에 휴식을 갖는 시간대도 유사하다. 동일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사한 생활리듬의 겹침은, 접촉을 통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지금은 나이와 구성원의 변화로 해녀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³⁵⁾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9시 전후에 출근하여 밤 12까지 영업을 하는 동안 동일한 공간에 머물면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공간에서 유사한 생활리듬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생활세계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고, 이것이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1년에 몇 번 보는 친척보다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손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이웃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때문에 경쟁을 해도 서로가 완전히 남들처럼 경쟁하듯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완전히 안 되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섭섭해도 오래 안 가요.

35) 현재 3명이 해녀일을 하고 있다.

또 이해도 되고 하니까. 몸에 밴 습관이 된 거 같아요. 맨날 눈뜨면 마주하는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³⁶⁾ 라는 말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공통의 장소에 기반한 긴 접촉 시간과 생활리듬의 겹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동일한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은 해녀공동체의 젊은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의 유대감 형성에도 관여한다. 수십년 동안 공통의 장소를 노동공간으로 삼고 거주공간 역시 가깝게 위치했다는 공간적 특징은, 나이든세대와 자녀인 젊은세대 간의 오랜 접촉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해녀공동체의 젊은세대들에게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이곳의 나이든 세대들은, 그냥 공동체 밖의 나이든세대가 아니라 ‘동네할매, 동네어른’이다. “여기 사람들 다 송도에 사는데 거리도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른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오던 분들이예요. 우리 어머니도 물질했는데 같이 물질하시던 분들이예요. 그래서 주위분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어려서부터 보아온 어른들에게 아무리 경쟁이 되고 해도, 어떤 때는 알뜰고 한 때가 있어도 그걸 그대로 표현하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 동네어른, 누구네 딸래미인데 어떻게 경쟁관계라고 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 있어요?”³⁷⁾라는 말에서처럼 이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생활공간에서 접촉하며 살아온 것이, 서로를 ‘남’이 아닌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남’이 아니라는 유대감 때문에, 나이든세대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가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앞에서 젊은세대들이 자신들의 경쟁논리를 이곳에 그대로 이식시키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조정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가, 개인이나 로컬 층위에서 오랜 세월 일상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나 결속력을 투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6) 회자매

37) 회자매

2. 추방의 위기와 공통의 장소경험

지금의 장소에 암남공원 해녀촌이 들어서기까지 이곳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산물을 채취했다고 하던 이곳의 바다는 1976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매립된다. 해안이 매립된 후, 해산물 채취로 생활을 영위해 온 이들은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매립지에서 계속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판매할 수는 있었다. 매립이 되고 나서 10여명 정도의 해녀가 매립된 곳 주변 풀밭과 시멘트 도로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해녀들만 장사를 하던 것이 나중에는 해녀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섞이게 되면서, 시멘트 도로를 중심으로 함지박을 놓고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이곳 해녀들이나 다른 해녀들로부터 물건 받아서 팔던 부산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파라솔도 없이 함지박을 놓고 좌판을 만들어 장사를 하였지만, 나중에는 파라솔까지 설치하고 장사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장사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청, 구청단속반원들과 이곳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녀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 단속반원들은 함지박을 덮어 물건을 쏟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함지박나 파라솔을 압수해 가져가기도 했다. 단속반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해녀들은 함지박을 풀밭에 숨기고 도망가곤 했다. 하지만 단속이 지속되자 이들은 도망만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찾게 되었다. 구청에서 함지박과 파라솔을 다 가져가자 사람들은 물웃을 입은 채, 용달차를 빌려 타고 구청에 가서 항의했다. 구청 마당에 채취해온 해산물을 다 쏟아놓고 항의를 하고, 입고 있던 해녀복을 찢기도 했다. 물건을 한 번도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³⁸⁾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이들은 끝내 자신들의 일터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38) 임00

그러던 가운데 부산시 서구에서 암남공원 개방을 결정한다. 1996년 3월 공원 입구의 7천 9백여 평을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으로 조성한다.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는 주차장 한편으로 물리게 되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 서구에서는 이들이 장사하는 천막이 사유지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가건물인데다 정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원 풍치를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한다.

이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응도 좀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1996년 해변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구청이나 방송국 신문사 등에 진정서를 보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과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피해보상이나 생계유지 대책 없이, 수십 년 동안 생계활동을 해오던 장소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시설을 강제로 철거당하고 쫓겨나게 된 사연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매립되면서 생계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계기반을 마련해 준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³⁹⁾

또 한편으로는 기부나 지역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시키고자 했다. 학교 행사 등에 해녀복 차림으로 참가하여 해녀를 소개하는 등의 일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의 일환이었다. 또한 비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배수시설과 하수 시설 등을 정비했다.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은 자신들이 충당했다. 편의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화장실을 짓고 관리인과 미화원을 고용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사비용과 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영업을 하였다. 장사를 한 수익금에서 재료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사비용과 관리인, 미화원의 임금으로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구청으로부터 해녀 당대와 그 직계가족까지만 이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임시적 사용을 허락받게 되었다. 이들이 구청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자 주변 지역의 해녀와 상이군인 단체에서도 해녀촌 입주를

39) 서00

요구해서 그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생계활동을 해오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주어진 임시적 권리라는 점을 기준으로, 갈등은 정리가 되었다. 그래도 초기에는 이러한 갈등의 영향으로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⁴⁰⁾ 지금은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특히 주변 지역 해녀들과는 그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이곳에서 판매할 정도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해녀공동체는 다각적인 노력 끝에 19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98년 이곳에 현재와 같은 모양의 구조를 가진 해녀촌을 만들어 들어오게 된다. 추첨을 통해서 29집의 자리를 정하고, 각자 들어가 그곳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모두들 추첨한 자리가 영원히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추첨 후 1주일 동안 영업을 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 바닷가 쪽과 산 쪽의 수입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임원진들과 나이든 해녀들이 의견을 모아 공동영업을 건의했다. 회의와 투표를 거쳐 공동영업을 시작하였다. 대형수족관을 만들고 재료를 공동구매해서 공평하게 수입을 나누어 썼다. 하지만 곧 공동영업의 병폐가 드러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다른 집으로 손님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공동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의논을 거쳐 투표를 통해 원래대로 개인영업 방식으로 돌아갔다. 공동영업은 3개월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개인영업으로 바꾸면서 위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씩 추첨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⁴¹⁾ 지금은 개인영업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영업을 하기도 한다.

해녀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기반으로서의 장소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공간이었다. 외부로부터의 추방의 위협은 불안을 공유하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유대와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계속되는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응

40) 서00

41) 서00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방식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들이 추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사업이나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영업을 한 것이나 조직적 대응을 위해 조합을 결성한 것 등도 다 이러한 예이다.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추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정도 이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해녀촌은 기반시설을 잃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뼈대마저 없어진 상점을 다시 만들고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간의 협력은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모든 기반이 사라진 작업장을 복구하는 과정에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왔으며, 없어진 도구를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해녀촌을 만들어 나갔다.⁴²⁾

이처럼 관이나 주변의 압력, 그리고 자연재해 등의 외부에 대응하는 과정은 명확한 구심점 없이 막연한 유대관계로 엮여있던 집단을, 공동의 목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하나로 결속시킴으로써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경험한 구성원들에게 이 공동체는 상상의 공동체가 아닌, 구체적인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인 것이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통의 장소에 기반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축적해 온 공통의 경험은, 외부로부터의 추상적 기획이 투과할 수 없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은 만들어 내었다. 전방위적으로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이렇게 장소에 기반한 구체적 일상들이 만들어낸 유대관계를 완전히 포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대는 글로벌이나 국가 같은 규모의 단위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구체적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의 로컬을 기반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가치체계나 작동원리에 대한 저항과 대안도 자리한다.⁴³⁾ 지금, 여기

42) 서00, 임00

43) 배윤기는 의식의 공간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로컬화와 아래로부터의 로컬화의 갈등과 경합에 주목하여 로컬을 기능성의 공간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로컬리티 인문학의 연구방향임을 논의하고 있다. 배윤기, 「의식의 공간으로서 로컬과 로컬

에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 생활세계인 로컬에, 보편적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동일화를 실행하려는 기획을 교란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대안적 가능성이 자리하는 것이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지식으로 소통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투과하지 못하는 로컬 공동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로컬이 보편화, 동일화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저항과 조정을 통해 ‘차이의 공간’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배경을 살피고, 이를 통해 탈장소화된 보편적 가치나 원리의 이식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으로 로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로컬 공동체인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대상으로 내부의 운영방식 살피고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내재하는 가치체계가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보편화, 동일화에 수렴되지 않는 로컬 공동체의 특성이 로컬을 ‘차이의 공간’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가 바로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가치체계나 작동원리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로컬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가 곧, 새로운 가치체계나 작동원리가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로컬리티의 양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한 로컬이 차이의 공간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해녀공동체 구성원의 특성과 공동체 형성, 변화 과정을 생활세계인 장소에 기반한 공동경험의 축적을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라는 로컬이 보여주는 차이의 배경에는, 공동체의 출발이 되었던 해녀들의 직업적 특성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지속된 생활리듬의 겹침과 추방의 위협, 재해 같은 공동 장소에 기반한

장소경험의 축적,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작동원리와 가치체계 그리고 유대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생활세계에 기반하고 공통경험의 시간적 축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해너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상상의 공동체가 아닌, 구체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가 ‘차이의 공간’으로 생성된 것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감과 결속력, 자생적 인 작동원리와 가치체계를 외부로부터의 추상적 기획이 투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으로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이렇게 장소에 기반한 구체적 일상들이 만들어낸 관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경쟁원리를 이식시킬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점에 로컬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대안적 가능성이 자리한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가치체계나 원리가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보편적 원리, 지식이라는 힘으로 동일화를 실행시키려 할 때, 그것에 저항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조정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로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공통의 장소경험과 이를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로컬의 작동원리와 가치체계, 그 기저에 자리한 유대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

참 고 문 헌

-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이후, 2010.
- 배윤기, 「의식의 공간으로서 로컬과 로컬리티의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3, 2010.
- 민윤숙,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 2012.
-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14.
-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제주도 잠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10권 2호, 2006.
-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2010.
- 안미정,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양상」, 『역사와 경계』89권, 부산경남사학회, 2013.
- 이동일 「대안공동체의 유지와 한계-변산공동체와 야마기시 실현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8-46쪽.
- 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 『창작과 비평』 143호, 2009.
- 차윤정,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코기토』 79집, 2016.
- 다이안 맥도넬, 『답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1992.

심층면담자

(성만 밝히기를 허용한 면담자와 이름 대신 상호명만 허용한 면담자의 의견에 따름)

면담자 성명	나이	직업	면담일자	면담 장소
서00	64세	전조합장(아내-해녀촌 상점 운영)	2015. 5.26, 5.29, 6.2	커피숍
임00	82세	해녀, 해녀촌 상점 운영	2015. 5.8, 5.16, 5.26, 5.29	암남공원 해녀촌
양01	75세	현조합장	2015. 5.26	암남공원 해녀촌
희자매	44세	해녀촌 상점 운영	2015. 5.26, 5.29	암남공원 해녀촌
양02	42세	해녀촌 상점 운영	2015. 5.26	암남공원 해녀촌

Study on a Local Community and the Creation of ‘Space of Difference’

-Focusing on a haeyeo community in Annam park

Cha, Yun-Jung*

Neo-liberalism that has been transplanted from the Wes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s currently communicated as one of the key working principles and universal knowledges in Korean society. Yet, when met up with those of the existing world, working principles or value systems that are forcibly transplanted from the top, are supposed to go through processes of conflict, contest, adjustment, exclusion, resistance. This study took notice of a local community where processes of contest and adjustment arise amid the social phenomenon of the universalization of neo-liberalism; signified this local community as ‘space of difference’; and paid attention to the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very space. For this purpose, a haeyeo community in Annam-dong was investigated which shows the looks of a local community that is not completely brought around to the neo-liberalistic principles transplanted from the top. First, it was noticed that the working principle inside the operating system of this haeyeo community is different from the neo-liberalistic one. In addition, along with membership characteristics of the haeyeo community, a ‘bonding relationship’ which had been formed through shared experiences based on a long period of temporal accumulation, and a world of life was confirmed to be present in the background of this difference. As stated

* H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ove, local value systems and working principles formed based on a world of life and through a temporal accumulation was confirmed to constitute a ‘space of difference’, that is, a space that creates difference in resistance against neo-liberalistic strategies that are meant to equalize the world through a forcible transplant from the top. In this sense, a ‘local’ is a footing space for resisting the transplant of de-localized universal values or principles, and the aspect of difference shown by this ‘local’ can be said to be an aspect of the locality.

Key words : Neo-liberalism, Local Community, Difference, the World of Life, and Resistance.

교신 : 차윤정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15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E-mail: greencha@pusan.ac.kr)

논문투고일 2016. 01. 15.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